

스피노자의 구원의 윤리학에서 미신의 위상*

이현복(한양대)

【주제분류】 근대철학

【주제어】 구원, 미신, 공포, 인식, 자유, 종교

【요약문】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인간의 자유와 지복 구원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가를 보여준다. 인간은 올바른 이성을 통해 영혼의 참된 만족인 지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신이었다. 스피노자는 미신을 인식의 결여, 무지의 산물로 간주했다. 그래서 인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미신은 사라지고 낮아질수록 다가온다. 1종지의 인간은 미신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다. 2종지의 자유인은 미신의 힘겨운 적이다. 자유인은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살고자 노력한다. 이성은 죽음에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신의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는 3종지의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와 미신은 태양의 이슬로 사라지고 영원한 삶을 누린다.

I. 문제성

정서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의 조건을 고찰하는 것이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철학’이라 부르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던 『에티카』에 철학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이는, 오히려 신학이나 종교에 어울리는, 그럼에도 그 무게가 전혀 가볍지 않는 용어가 두개 있다. 그 하나가 구원(salus) 개념이다. 스피노자는 ‘우리의 철학’에서 이 단어를 단 두 번, 그것도 5부에서만 사용하지만 그 울림이 결코 만만치 않다.¹⁾ ‘지

투고일: 4월 28일, 심사완료일: 5월 16일, 게재확정일: 5월 18일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9737)

1)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인 사랑은 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무한 사랑의 일

성의 역량과 인간의 자유에 대해' 논하는 『에티카』 5부의 결론이 비로소 도출되는 지점, 그래서 '우리의 철학'에서 기하학적 순서에 따라 증명된 수많은 정리들이 마침내 수렴되는 지점이다. 여기서 스피노자는 구원 개념을 처음 등장 시키고, 자유 혹은 지복 개념과 동등한 반열에 올린다. 다른 한 번은 5부 정리42 주석, 저 유명한 '우리의 철학' 마지막 문장에서다.²⁾ 스피노자는 정리36 주석에서 구원을 자유 및 지복과 함께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것 없이 홀로 등장, 이로써 『에티카』 전체에 마침표를 찍는다.

또 하나는 미신(superstitio) 개념이다. 이 개념은 『에티카』에서 최소 여덟 번 등장한다.³⁾ 여기에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특

부'라는 5부 정리36, "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한에서 인간을 사랑하고, 따라서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과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인 사랑은 동일하다"는 보충에 이어, 스피노자는 그 주석에서 말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구원(salus), 지복(beatitudo) 혹은 자유(libertas)가 무엇에 있는지를, 즉 그것이 신에 대한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 혹은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한다." 향후 각주 시, 강영계 번역본을 기본으로 필요시 약간의 수정을 가한 『에티카』의 경우 본문에 부, 정리, 주석 혹은 보충 등 출처가 명시되어 있을 시 별도의 각주를 생략할 것이고, 『신학정치론』의 경우에도 본문에 출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생략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서문의 경우에는 겐하르트 판을 기준으로 항을 지시하는 []로 처리할 것임.

- 2) "이제 여기에 이르는 것으로서 내가 제시한 길은 매우 힘들게 보일지라도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드물게 발견되는 것은 물론 힘든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구원(salus)이 손앞에 있다면 그리고 큰 노력 없이 찾을 수 있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찌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모든 고귀한 것은 드문 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다."
- 3) "그리하여 이 [목적론적] 편견은 미신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 깊이 뿌리 박혔다"(1부 부록). "이 이론은 각자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여성적인 동정이나 편협심 혹은 미신이 아니라 오직 이성 지도에 따라 [...] 도와주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2부 정리49 주석). "우연히 희망이나 공포의 원인이 되는 사물은 선 혹은 악의 전조라고 불린다. [...] 우리는 희망하는 것을 쉽게 믿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쉽게 믿지 않도록, 그리고 전자에 대해서는 더 많게 또 후자에 대해서는 더 적게 느끼도록 본성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인간이 어디서나 사로잡히는 미신들

이점이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선 5부에만 없고 1부에서 4부까지, 또 어떤 의미에서는 5부까지 모두 미신 개념이 고루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모두가 ‘주석’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에티카』의 ‘주석’은 종종 다른 입장을 비판할 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신이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두 곳에서는 미신의 기원을 다루고, 나머지에서는 이성 혹은 철학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미신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전자의 의미에서의 미신, 즉 미신의 기원을 다루는 부분은 앞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뭔가 도드라진 면이 엿보인다. 신학이나 종교철학이 아닌 윤리학 텍스트에서 미신을 다루는 것도 모자라 그것의 기원을 고찰한다는 것은 다소 의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스피노자는 『에티카』의 집필을 중단하고, 신학텍스트 집필로 달려갔다. 그리고 『신학정치론』(*Tractatus Theologico-Politicus*)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신학정치론』의 본문은 물론, 그 서문은 미신으로 시작해서 미신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신학-종교가 구원을 말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미신이 ‘종교적 구원’에 치명적인 결림돌이 된다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우리의 철학’에서 미신(의 기원)을 논한다는 것, 그래서 철학과 미신이라는 조합은 적어도 데카르트적 관점에서는 많이 낯설어 보인다. 그러나 『에티카』에서의 미신은 하나의 사실이며, 게다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마치 미신이야말로 ‘철학적 구원’에 가장 큰 결림돌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생겨났다”(3부 정리50 주석). “짐승 살육을 금하는 법은 건전한 이성보다는 공허한 미신과 여성스런 동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4부 정리37 주석1). “그러나 미신적인 자들에게 새로운 문젯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나는 이것을 이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4부 정리39 주석). “실제로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음울하고 슬픈 미신뿐이다”(4부 정리45 주석). “덕을 가르치기보다는 결점을 비난하는 것을 더 염두에 두고, 사람들을 이성으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공포에 짓눌려서 덕을 사랑하느니 악을 피하도록 하는 미신적인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의도할 뿐이다”(4부 정리63 주석).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미신은 슬픔을 가져오는 것을 선으로, 기쁨을 가져오는 것을 악으로 정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4부 부록31항).

미신과 철학(혹은 이성)과의 상관성을 『에티카』보다 『신학정치론』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보게 된다.⁴⁾ 이런 말들은 미신이 철학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면 그것은 왜, 어떻게 그럴까? 이 글의 문제의식은 이것에서 출발한다.

스피노자의 『에티카』에서 미신이 차지하는 위상을 해명하려는 이 글은, 우선 『에티카』 1부 부록에서 목적론과 함께 논의되는 미신의 기원 그리고 동시에 『신학정치론』의 서문에서 나타난 미신의 원인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3부의 정서이론들 가운데 미신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포(와 희망)를 살필 것인데, 이때 이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제시한 바 있는 마트롱의 입장을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공포의 극한 대상인 죽음의 문제와 연관해서 4부의 ‘삶을 성찰하는’ 자유인 그리고 5부의 ‘영원한 정신’ 그리고 신의 지적 사랑으로 이어지는 논의를 중심으로 미신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II. 미신의 원인

스피노자는 『에티카』 1부 부록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저 편견은 미신이 되었고, 정신 속에 깊이 뿌리 박혔다.” 여기서 미신의 출처로 지목된 ‘저 편견’은 목적론적 편견이다. 스피노자는 1부 부록을 온전히 목적론 비판을 위해 할애한다. 목적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철학의 주류로 자타가 인정한 이론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반기를 들었다. 목적론에 반하는 필연론 혹은 결정론을 1부 신문에서 제시했다. “자연은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다”(natura nihil frustra agere)는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스피노자가 보기에, 목적론은 자신이 제시한 것과는 다른 방식대로 사물들의 연결을 파악하는 이론, 그래서 필연론이 아니라 우연론을 함축하는 이론이었다. 결정

4) “미신은 진실한 지식과 도덕 문제에 몰두한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적이 기 때문이다.”(2장) 나아가 “미신은 대중에게 이성과 자연을 경멸하고, 이성과 자연에 반대되는 것만을 찬양하고 숭배하도록 가르친다.”(7장) 이는 또한 스피노자가 한 청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한 파괴적인 미신을 치워버리고 신이 자네에게 주었던 이성 능력을 인정하게!”(편지76)

론을 제창한 그에게 그것은 커다란 거짓전해였다. 그리고 이 편견은 또 다른 장애물을 잉태하고 있었던 바, 바로 미신이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저 편견’의 자식인 미신 역시 장애물이었고, 자기 이론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이었다. 그러나 ‘저 편견’의 입장에서 미신은 효녀였다. 미신은 믿음이었으며, 편견은 생각이었다. 믿음은 생각보다 사람들의 영혼에 미치는 효과가 월등했다. 그래서 ‘저 편견’은 자식 덕분에 사람들의 정신 안에 ‘깊이 뿌리 박’힐 수 있었다.⁵⁾

스피노자는 다른 편견들이 의존하는 가장 근원적인 목적론적 편견을 다음 같이 정리한다.⁶⁾ “만물은 목적을 위해 작용하고, 신조차도 특정한 목적에 따라 만물을 이끈다. 왜냐하면 신은 인간을 위해 만물을 만들었고, 자신을 경배하게 위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왜 많은 이들이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또 왜 모든 이들에게 본성적으로 이 편견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는지”를 묻는다. 이 물음에 답하면서 마침내 “자연은 자신에게 아무런 목적도 설정하지 않았고, 모든 목적원인은 인간의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스피노자는 이 연역과정을 저 근원적 편견의 토대를 이루는, 그래서 기하학적 순서에 따른 증명에서 일종의 공리에 해당되는 두 명제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사물의 원인에 대해 무지한 채 태어났고, 인간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욕망한다.” 이 토대 명제에서 하위 편견에 해당되는 두 명제를 도출한다. “인간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목적(이로운 것)을 위해 만사를 행한다.” 그래서 인간(맹목적인 대중)은 사물의 목적원인만을 알려하고, 그것을 알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자기 내외부에서 목적원인을, 이로운 것을 찾는다. 그 결과는 세 가지다. 첫째, 내부 관찰을 통해, “자기 기질에 따라 다른 것의 기질을 판단”한다. 둘째, 자기 신체와 외부 자연물 관찰을 통해, “모든 자연물을 이로운 수단들로 간주”한다. 셋째, 자신이 이런 수단들의 공급자가 아님을 깨

5) ‘의심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은 작은 충격에도 쉽사리 이리저리 기울어 지는데, 이는 휘젓는 희망과 공포에서 그들의 영혼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훨씬 더 쉽게 일어난다.’(『신학정치론』 서문, 1)

6)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현복, 『스피노자와 목적론적 편견: 『에티카』 1부 부록을 중심으로』, 『칸트연구』, 제30집, 한국칸트학회, 2012, 111~140 참조.

단고, “이로운 수단을 제공해 준, 인간적 자유를 지닌 어떤 혹은 여러 자연의 지배자들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진다.

스피노자는 이제 이런 관찰의 결과들로부터 저 근원적 편견을 도출한다. “자연물이 목적을 위해 작용한다”는 근원적 편견의 첫째 항은 “자연물은 인간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관찰의 둘째 결과에 상응한다. “신조차도 특정한 목적에 따라 만물을 이끈다”(신은 경배받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을 위해 자연물을 이끌기 때문에)는 편견의 둘째 항은 “수단의 공급자인 자연의 지배자가 존재한다”는 관찰의 셋째 결과에 상응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미흡하다. “자연의 지배자가 왜 인간을 위해 만물을 이끌고, 그가 어떤 기질의 소유자인지”가 확인 보완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중은 자신의 기질에 따라 지배자들의 기질을 판단하고, “이로부터 그들은 신들은 인간에게 의무를 지우고, 인간에게 최대한 존경을 받기 위해 만물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이끈다고 판단해야 했다.” 이제 신은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대신 의무를 부과하고 경배 받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주고받으며 거래하는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의 형상이 드러난다. 나아가 인간에게 자연물의 권리를 제공하는 대신 경배의 의무를 부과하는 신을 위해, 아니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신이 다른 이들보다 자신을 더 총애하고, 자신의 맹목적인 욕망과 끝없는 탐욕을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중은 역시 자기 기질에 따라 다양한 경배 양식을 고안하고 실행한다. 이런 행태가 바로 목적론적 편견의 변형으로서의 미신이다.

편견의 연역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목적이고 자연물은 수단이라는 관찰의 둘째 단계까지는 미신은 물론 신앙 혹은 종교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순수하게 (목적)이론의 단계이다. 자연의 지배자가 있다는 셋째 결과에서 비로소 이론이 신앙으로 변형되고 목적론이 종교와 연계된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거짓신앙, 미신은 아니다. 스피노자가 『신학정치론』에서 제시한 ‘보편종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음 단계이다. 신에게 인간의 모습을 투사하고, 자기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을 위해 자기만의 경배 양식의 고안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1부 부록에서 목적론에서 끌어낸 미신의 정체이다.

그러나 1부 부록에서 미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스피노자는 미신의 기원에 이어 그 효과에 대해 말한다. “[...] 그들은 자연이 쓸모없는 일(즉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음을 제시하려 했지만, 그들은 자연, 신들이란 인간과 마찬가지로 미쳐있음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자연 안에 해로운 것들이 발견되면 대중들은 자신들의 경배 부족으로 신이 분노한 탓으로 간주한다. “이것들은 인간들이 신들에게 가한 모욕으로 인해 또는 인간이 신을 경배함에 있어 범한 죄로 인해 신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생겼다.” 이런 신의 분노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더욱 더 다양하고 기괴한 방식으로 신을 경배하고 속죄한다. 이로써 물리적 악은 도덕적 악으로 전이된다. 그리고 이기심에 불타는 미신은 관용은커녕 타자를 철저히 배척한다. 이때 자연스럽게 폭력이 수반된다. 인식의 질서에서 미신은 자연을 전복시키고, 신의 완전성을 소멸시키며, 미신적인 자들은 ‘무지의 피난처’로 도피한다.

현실에서 미신은, 미신에 취한 ‘자연과 신의 해석자들’은 대중의 계몽을 결코 원치 않는다. 대중의 무지가 자신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보존하기 때문이다. 대중의 무지와 해석자의 권위는 그래서 함께 간다. 무지에서 아둔한 놀라움이 생기고, 자연의 무지에서 기적의 놀라움이 비롯된다. 대중의 놀라움은 해석자들의 존경과 상응한다. 그래서 자연의 해석자들은 무지에 안식처를 구하고 놀라움의 환영을 보존하려는 대중들을 선동한다. 기적의 신비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참된 원인을 탐구하는 사람들, 자연을 경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학자들을 이단자나 불경건자로 규정하고 단죄한다. “왜냐하면 무지가 사라지면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방어하기 위한 유일 수단인 놀라움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목적론자들의 견해는 이제 신의 해석자들 혹은 대변자들에게 믿음으로 변한다. 그들은 동지이과 공범이지만, 미신은 편견보다 강하다. 목적론과 ‘성서의 종이와 잉크’⁷⁾로 무장한 미신적인 자들은 이제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필사적으로 배제의 폭력을 사용한다. 이것들이 스피노자가 『에티카』 1부

7) “[...] 그들이 너무 신성하려고 노력한 나머지 종교를 미신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아닌지, 게다가 허상과 영상을, 다시 말해 종이와 잉크를 신의 말씀으로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신학정치론』, 12장)

부록에서 제시한 미신의 대략적인 효과들이다. 그는 미신의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신학정치론』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넓고 깊게 논구한다.

스피노자는 『에티카』 1부 부록에서 미신의 기원과 효과에 대한 설명을 이쯤에서 접는다. 그리고 그 논의를 『신학정치론』으로 넘긴다.⁸⁾ 『에티카』를 던지고 뭔가에 쫓기듯 쓰기 시작한 이 책에는 『에티카』에서의 냉정과 달리 스피노자의 열정 그리고 분노가 스며있다. 그의 분노가 향한 것은 무엇보다 당시 교회와 성직자들이다. “[...] 인민에게 종교란, 교회의 장관직이 고위직이며, 그 직무가 혜택이고, 목사들이 최고의 영예를 갖는 그런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 이런 남용이 교회에서 생겨나면서 이와 동시에 성무를 관장하려는 거대한 욕망이 곧장 가장 사악한 자들을 기습했고, 성스런 종교를 전파하려는 사랑은 야심과 더러운 탐욕으로 탈바꿈했다. 사원자체가 극장으로 퇴화되어, 거기서는 더 이상 교회 박사들이 아니라, 웅변가들, 곧 저마다 인민을 가르치려는 욕망이 아니라 인민을 자기네를 향한 경탄으로 얼빠지게 하고 자기네와 의견을 공유하지 않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것, 즉 우중이 가장 경탄할만한 것만을 가르치려는 욕망을 가진 웅변가들의 목소리만 들려왔다. 세월이 흘러도 진정되지 않은 커다란 논쟁과 시기, 증오가 바로 여기서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⁹⁾ 이는 1부 부록에서 스피노자가 미신의 효과에 대해, ‘자연과 신의 해석자들’에 대해 말한

8) 이 책의 내용을 네들러는 압축적으로 정리한다. “스피노자는 성경이 신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인간 문학작품이라고 주장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는 ‘참된 종교’는 신학, 제의적 의식, 종파적 교의 등과는 상관이 없으며, 오직 단순한 도덕적 법칙 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근대 국가의 통치에 성직자가 어떤 권력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신성한 섭리’란 자연법 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실재들의 자연적 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기적은 불가능하고, 기적을 믿는 것은 현상들의 참된 원인에 대한 무지의 표현과 다름이 없다.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은 특별히 생생한 표상상을 경험했던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며,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일 뿐이다.” S. 네들러, 『스피노자와 근대의 탄생』, 김호경 옮김, 글항아리 2014, 11~12.

9) B.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서문, 9.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는 독설에 가까운 이 글을 『신학정치론』의 서문에서 주저 없이 내뱉는다.

이 책 서문의 첫 문장도 당연히 미신이다. “만일 인간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모든 일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혹은 운이 언제나 그들 편이었다면, 아무도 미신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미신의 말로 다음 문장이 이어진다면, 윤리학에서든 신학에서든 그 어디에서든 간에 미신은 스피노자의 머리와 가슴 한 가운데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어떤 계획도 생각해내지 못할 정도로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한도 없이 욕망하는 운의 불확실한 선들로 인해 희망과 공포 사이에서 비참하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이나 믿으려는 영혼을 갖고 있다.” 그런 다음 미신의 원인을 분명히 한다. “그래서 미신을 발생시키고, 보존하고, 살찌우는 원인은 바로 공포이다.”¹⁰⁾ 1부 부록에서 목적론적 편견의 원인 분석에 가려서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이 여기서 밝게 드러난다. 공포(와 희망)의 정서가 미신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스피노자는 『에티카』 3부의 희망과 공포와 관련된 정리들(3부 정리18, 정리50, 정서의 정의12-15항)에서 증명한 내용들을 서문에 가져온다.¹¹⁾

10) “Causa itaque, a qua superstitio oritur, conservatur et fovetur, metus est.”

11) 마트롱은 『에티카』 1부 부록과 『신학정치론』 서문에서 스피노자가 제시한 미신에 대한 논의를 다음같이 엮는다. “미신의 발생은 『신학정치론』의 서문의 서두 [...] 에서 추적되고 있다. 이 텍스트는 『윤리학』 1부 부록과 판이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것을 완결시킨다. 1부 부록에서 스피노자는 ‘지배자들’에 대한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 미신의 가능성이 함축되어 있지만 보편종교의 가능성 역시 함축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학정치론』 서문에서는 이와 반대로 ‘지배자들’은 이미 있으며, 편견은 연역되는 대신 오히려 전제되는 반면, 이제 편견이 미신으로 변형되는 메커니즘의 정확한 본성이 설명되고 있다. 이는 물론 1부 부록에서는 다소 희미하게 제시되었던 것이다”(A. 마트롱,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 김문수/김은주 옮김, 그린비, 2008, 197-198). 그러므로 마트롱에 따르면, 서문이 1부 부록은 ‘완결’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배자들에 대한 믿음의 ‘기원’이, 또 하나는 1부 부록에는 ‘희미하게’ 제시되었던 ‘편견이 미신으로 변형되는 메커니즘의 정확한 본성’이

서문의 스피노자에 따르면, 공포가 미신의 원인인 까닭은, 같은 말이지만 “인간이 오직 공포가 지속되는 동안만 미신에 사로잡히는”¹²⁾ 이유는 인간이 불확실한 선들을 끊임없이 욕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한 계획에 따라 만사를 통제할 수 없고, 운도 늘 자신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욕망하는 불확실한 것들 모두가 확실해질 수는 없다.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불확실한 상태, 즉 결말이 의심스러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과 공포 사이를 ‘비참하게’(misere)¹³⁾ 오간다. 이 비참한 영혼의 동요 때문에 그의 영혼은 아무것이나 닥치는 대로 믿고 따른다. 즉, 기도와 여성스런 눈물로 신의 도움을 간청하고, 상상의 착란들이나 꿈들 혹은 유치한 비행들 속에서 신의 응답을 듣고, 신의 명령이 짐승의 오장육부에 새겨

서문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완결’에 대한 마트롱의 두 번째 이유는 일리가 있다. 1부 부록보다는 서문에 페커니즘이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에티카』 3부에서 이미 거의 논의가 된 것들을 서문의 어법으로 정리한 것이지, 서문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새로 만들어 보완, 완결시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유인 ‘지배자들에 대한 믿음의 기원’에 대해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분명치 않다. 1부 부록에는 자연의 지배자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 또 자연의 지배자들이 어떤 기질의 소유자이고,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도 제시되어 있었다. 지배자들을 믿는 이유, 즉 이기적 탐욕(물론 마트롱이 뒤에 강조하듯이, 이 탐욕에 대한 ‘좌절’ 부분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에 따른 신의 도움 요청, 신의 응답, 신의 분노, 신에 대한 경배양식 등도 있었기 때문이다.

- 12) “homines scilicet non nisi durante metu superstitione conflictari”(『신학정치론』 서문 4.)
- 13)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희망과 공포의 정서, ‘영혼의 동요’라고 부른 이 두 정서 사이의 동요를 스피노자는 ‘비참한’ 것으로 간주한다. 뒤에 보겠지만, 이는 스피노자에게 사후의 보상의 희망과 처벌의 공포라는 미신적 사유와 직결되며, 중국에는 『에티카』의 마지막 문단에서 재차 강조되는 현자와 무지자, 자유인과 노예의 구별에서도 나타난다. “[...] 무지자는 외적 원인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동요되어 영혼의 참된 만족을 결코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 이에 비해 현자는 영혼의 거의 흔들리지 않고 [...] 언제나 영혼의 참된 만족을 소유한다.”(『에티카』 5부 정리⁴² 주석)

있다거나, 바보들, 미치광이들 혹은 새들이 신의 명령을 예언한다고 믿는 것, 이것이 미신이다. 그런데 공포 없는 희망 없다면, 미신의 원인은 공포이다. 마트롱은 말하듯이, “지배자들의 믿음이 공포에 의해 변양되어 미신을 발생시킨다.”¹⁴⁾ 그래서 스피노자는 서문에서 단적으로 말한다. 미신의 원인은, 개인과 공동체를 타락시키는 미신의 원인은 공포다.

III. 희망과 공포

위에서 보았듯이, 스피노자는 목적론적 편견이 미신으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에티카』 1부 부록과는 달리 『신학정치론』 서문에서 희망과 공포의 정서를 적극 끌어들이며, 마침내 공포를 미신의 원인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신학정치론』에서 처음으로 또 유일하게 제시된 것은 아니다. 스피노자는 이미 그것을 『에티카』 3부에서 희망과 공포의 정서를 다루면서, 이것들을 미신의 기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 3부 정리18에서 “인간은 현재 사물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과거 혹은 미래 사물의 이미지에 의해서도 동일한 기쁨과 슬픔의 정서로 자극된다”는 것을 증명한 후, 그 주석2와 3부 정서의 정의 12-15항에서 희망(Spes)과 공포(Metus), 안도(Securitas)와 절망(Desperatio), 만족(Gaudium)과 상심(Conscientiae morsus)을 정의한다. 희망은 우리가 그 결과를 의심하는 미래 혹은 과거 사물의 이미지에서 생기는 비항상적인 기쁨이고, 공포는 우리가 그 결과를 의심하는 미래 혹은 과거 사물의 이미지에서 생기는 비항상적인 슬픔이다. 그리고 이들 정서로부터 의심이 제거되면 희망은 안도가 되고, 공포는 절망이 된다. 예기치 않은 기쁨인 만족은 우리가 그 결과를 의심했던 과거 사물의 이미지에서 생기는 기쁨이고, 예기치 않은 슬픔인 상심은 만족과 반대되는 슬픔이다. 나아가 3부 정서의 정의12-13항 해명에서 공포가 없으면 희망도 없고, 희망이 없으면 공포도 없음을 설명한다.

이제 스피노자는 3부 정리50에서 “각 사물은 우연적으로 희망이나 공포

14) A. 마트롱,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 202 참조.

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후, 그 주석에서 “그리고 이로부터 인간들이 도처에서 사로잡히는 미신들이 생긴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희망이나 공포의 우연적 원인들인 사물들은 선이나 악의 전조들(*omina*)이라 불린다. 그런데 이런 전조는 그것이 희망이나 공포의 원인인 한에서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이다. 또 그것이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인 한에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거나 증오한다. 나아가 그런 한에서 그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공포의 원인이나 희망의 장애물로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하는 것을 쉽게 믿도록, 두려워하는 것은 어렵게 믿도록 우리 본성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¹⁵⁾ 이로부터 인간들이 도처에서 사로잡혀 있는 미신들이 생겨난다(*ex his ortae sunt Superstitiones*).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스피노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에티카』에서 미신의 기원(*orior, origo*)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이다.¹⁶⁾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희망과 공포의 정서를 다루면서 “인간은 본성상 희망하는 것을 쉽게 믿고, 두려워하는 것을 어렵게 믿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희망하는 사물을 위해, 『신학정치론』 서문의 용어로 말한다면, ‘한도 없이 욕망하는 불확실한 사물들’을 위해 우연한 원인인 선의 전조를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행태, 또 악의 전조를 제거하려는 행태를 미신이 기원으로 간주하고, 일단 만족한다. 미신을 위한 본격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15) 스피노자는 “[...] 우리 본성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nos natura ita esse constitutos, ut)고 말한다. 이것은 가깝게는 “모든 인간은 본성상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omnes homines natura superstitioni esse obnoxiosus)는 것과, 멀리는 “왜 모든 이들에게 본성적으로 이 편견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는가”(cur [...] omnes natura adeo propensi sint ad idem amplectendum, 『에티카』 1부 부록)와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목적론적 편견은 물론 미신 또한 인간 본성의 파생물이라고 말한다. 즉, 그는 미신이 “모든 사멸자들이 신성에 대해 혼란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신학정치론』 서문, 5)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산물임을 강조한다.

16) 1부 부록에서는 사실 미신이 ‘생긴다’가 아니라, “저 편견에서 미신으로 ‘변형되었다’(versum)”이다.

것이다. 이제 그는 그 자리를 『신학정치론』에, 특히 그 서문에 마련한다. 앞에서 인용한 서문의 첫 문장을 달리 말하면, 인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만사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미신에 빠지고, 운명의 여신이 늘 자기에게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서 미신이 먹이가 된다. 스피노자는 이제 일상의 경험을 토대로¹⁷⁾ 미신의 원인을 추적한다. 사람들은 삶이 윤기가 날 때에 자신에 넘쳐 남의 조언을 모욕으로 간주하지만, 사는 게 껍떡해 졌을 때는 삶의 불안감에 아무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아무것이나 따라간다. 그런데 삶이 불안을 넘어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에 반색하고, 조금이라도 나쁜 것에는 기겁한다. 그러나 우연히 과거의 선이나 악을 상기시키는 어떤 것이 나타나면, 스스로 점쟁이가 되어 그것을 행과 불행의 예고로 간주, 그것을 길조나 흉조로 부른다. 그러다가 아주 생소한 것을 보게 되면 호들갑을 떨면서, 이것을 신의 분노로 간주, 기도와 회생 제의로 달랜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서문에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미신의 전이과정이며, 그는 이런 사태를 다음으로 결론짓는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무한한 것들을 꾸며내고, 마치 자연 전체가 그들과 더불어 미치기나 한 것처럼 자연을 놀라운 방식으로 해석한다.”¹⁸⁾ 이와 같은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스피노자는 미신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립한다. “온갖 종류의 미신에 폭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을 한도 없이 욕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불확실한 것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에서 희망과 공포의 정서가 생기고, 이 정서들 사이에서의 동요, 위험 상황 직면, 자구책 상실 등이 겹칠 때 신의 도움을 요청하고 신의 응답을 듣고, 신에 경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사태의 결론이 다음이다. “공포는 이토록 인간을 정신 나가게 만든다.”¹⁹⁾ 그래서 미신을 야기하는 것도, 보존하고 키우

17) “[...] 내가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모른다고 믿어도, 이것은 아무도 모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사람들 사이를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목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신학정치론』 서문, 2)

18) 같은 곳. 이는 『에티카』 부록의 다음 글을 연상케 한다. “그들은 자연이 쓸모 없는 것(곧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연과 신들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미쳐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는 것도 공포이다.

마르롱은 그의 주저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에서 “희망과 공포의 사이클, 미신의 발생과 현신들”이라는 주제로 미신뿐만 아니라 『신학정치론』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탁월한 해석을 시도한 바 있다. 희망과 공포의 사이클을 미신에 한정해 살펴보면 다음 같다. 그가 제시한 희망과 공포의 사이클은 네 국면을 가진다. 그 출발점은 서문에서 언급된, 불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충분히 지혜롭고, 게다가 운명의 여신도 늘 함께 있다는, 삶의 자신감이 하늘 끝까지 치솟고 ‘철없는’ 희망에 들떠 있는 모습이다. 1. 그런데 이제, 살면서 이런 저런 낭패를 경험한다. 세상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이른바 ‘철이든’ 불안감이 스멀스멀 다가온다. 삶은 여전히 장밋빛이지만, 그럼에도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마침내 공포가 희망과 균형을 이룬다. 2. 그러다가 삶은 기대한 장밋빛이 아니라 두려움의 흠뻑으로 변해가고, 치솟던 자신감은 땅으로 곤두박질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지만 또 무엇도 못할 게 없는, 세상 등지기 직전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제안도 마다하지 않고, 길거리 개에게도 조언을 구할 참이다. 그러다 마침내 완전한 좌절의 상태에 이른다. 3. 운명의 여신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미소를 짓는다 했듯이, 예기치 않는 우연한 사건이 다시 숨 쉴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가져온다. 삶은 여전히 두려움의 흠뻑으로 가득하지만 삶의 서광이 조금씩 드리운다. 희망이 서서히 증가해서 공포와 마침내 균형을 이룬다. 4. 삶이 다시 온기로 가득해진다. 남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의지로 내 길을 간다. 좋은 것을 없나 주변을 기웃거린다. 자기 힘과 운명의 가호를 다시 확신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벽한 안심이 다시 찾아온다. 공포가 없으니 희망도 없고, 삶은 무르고 타성적이게 된다. 어깨를 들썩이며 충고를 모욕으로 받는다. 하지만 착각은 한 순간이고, 사이클은 다시 돈다.²⁰⁾

이 공포와 희망의 사이클에서 구체적인 미신의 발생은 물론 두 번째이다. 그리고 세상사가 그렇듯, 이 사이클은 계속 순환될 것이다. 공포와 순환

19) “Tantum timor homines insanire facit.”(『신학정치론』 서문, 3)

20) 이것은 마르롱의 것을 나름대로 각색한 것이다. A. 마르롱,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 194-196 참조.

의 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한 인간은 미신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역량은 제한되어 있고 외부원인들의 힘에 무한한 압도된다. 세상의 질서를 바꾸기 보다는 내 생각을 바꾸라는 스토아 전통에 스피노자는 서 있다. 그래서 그는 공포와 희망의 감정에 눈을 돌린다. 공포와 희망의 정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그가 정서의 본성과 그 힘에 주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포와 희망을 비롯해 인간의 완전성을 실현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부정적인 정서들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에티카』 4부에서 정서의 힘과 인간의 예속에 대해 다루면서, 희망과 공포가 좋은 정서인지 나쁜 정서인지, 즉 인간의 완전성에 기여하는지 방해하는 지를 고찰한다. 그 결과는 공포는 물론이고 희망도 “그 자체로 선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포는 슬픔이고, 희망은 공포 없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희망 역시 그 자체로는 선일 수 없고, 기껏해야 기쁨의 지나침을 억제하는 한에서만 선일 수 있다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이것이 증명되는 4부 정리47의 주석에서 이 두 정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래서 적어도 미신이 먹잇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침내 제시한다. “우리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살려고 노력(ex ductu raitonis vivere conamur)할수록, 우리는 희망에 덜 의존하고 공포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운을 지배(fortunae imperare)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을 이성의 확실한 조언으로 이끌려고(certo rationis consilio dirigere) 더욱 노력하는 것이다.”²¹⁾ 희망과 공포의 비참한 동요와 그 순환 고리를 끊고 확신에 찬 삶을 원하는 자, 운명적인 삶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자기의 역량으로 자신의 삶을 원하는 자, 전조에 의한 미신적인 삶이 아니라 이성적인 삶을 원하는 자, 이들에게 스피노자는 권한다. “이성의 지도에 따라 행위하고 살며 자기 존재를 보존하라.”(4부 정리 23).

21) 이 말은 『신학정치론』 서문의 첫 문장, “만일 인간이 자신의 만사를 특정한 계획에 따라 통제(certo consilio regere: [이것을 달리 번역하면, 확실한 조언에 따라 지도])할 수 있었다면, 혹은 운이 언제나 그들 편이었다면, 아무도 미신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과 좋은 대비를 이룬다.

IV. 공포, 이성 그리고 자유인

이성의 조언, 이성의 명령, 이성의 지도 등에 따른 삶은 스피노자에게 있어 이성적 인식에 의한 삶, 즉 ‘이성적 삶’이다. 이성적 인식에 의한 삶은 1종지에 의한 ‘상상적 삶’과 3종지에 의한 ‘영원한 삶’과 대비되는 2종지에 의한 삶이다. 상상적 삶이 정서와 억견에 의해 인도 되는 삶이라면, 이성적 삶은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삶이다. 전자의 삶은 노예의 삶이고, 후자의 삶은 자유인의 삶이다.²²⁾ 그래서 ‘무지의 피난처’로 도피한, 무지의 극치에서 비롯되는 미신적 삶은 상상적 삶, 노예적 삶의 극한이다.

스피노자는 앞에서 살펴본 4부 정리47 주석에서, 미신과 운명의 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책으로 이성의 지도에 따른 삶을 권하기 전에 다음처럼 말한다. “이 [희망과 공포의] 정서들은 인식의 결핍(cognitionis defectum)과 정신의 무능력(Mentis impotentiam)을 지시한다는 것을 이것에 덧붙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안도와 절망, 만족과 상실도 정신의 무능력의 표식이다. 안도와 만족은 기쁨의 정서들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앞선 슬픔, 즉 희망과 공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의 능력은 오직 인식에 의해서만 정의되고, 그것의 무능력 혹은 수동은 오직 인식의 결핍에서만, 즉 그것에 의해 관념들이 부적합하다고 불리어지는 것에 의해 평가”(5부 정리20 주석)되고, 나아가 “정신의 능력은 오직 지성(intelligentia)에 의해서만 정의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서의 치유책(affectuum remedia)을 오직 정신의 인식(Mentis cognitione)으로부터 결정할 것”(5부 서문)이고 말한다. 이는 희망과 공포의 정서에 휘둘린다는 것은 정신의 무능력을, 정신의 수동성을 보여주는 징표, 곧 정신이 부적합한 관념들로 식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이런 정서의 치유책을, 이것을 의지에게 절대권에게 부여한 데카르트와는 달리, 무엇보다도 정서를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 힘, 정신의 능력인 지성에 맡긴다. “[...] 우리는 명석 판명한 인식이 [...] 정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인식은 정서들이 수동들인 한에서 절대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정서들

22) 『에티카』, 4부 정리66 주석 참조.

이 정신의 가장 작은 부분을 구성하도록 만든다”(5부 정리20 주석).

정서의 치유책으로 채택된 명석 판명한 인식 혹은 적합한 인식은 2종지 혹은 이성, 3종지 혹은 직관지에 모두 해당된다. 전자는 공통개념들을, 후자는 신의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략 구별된다. 그럼에도 3종지는 물론 2종지도 필연적으로 참이다. 스피노자는 『에티카』 2부에서 인식의 종류를 열거한 후, 이성의 본성을 설명한다. “사물을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고찰하는 것은 이성의 본성에 속한다”(정리44), 그리고 “사물을 어떤 영원의 관점 아래에서 지각하는 것은 이성의 본성에 속한다”(정리44 보충2). 즉, 이성은 본성상 사물을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시간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 아래에서 인식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둘은 사실 별개의 것이 아니다. 사물을 필연으로 고찰한다는 것은 영원의 관점에서 인식한다는 것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고, 사물을 시간의 관점에서 인식한다는 것은 사물을 우연으로 고찰한다는 것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우연으로, 시간의 관점에서 사물을 고찰하는 것 상상력, 즉 1종지에 속한다. “이로부터, 우리가 사물을 과거 및 미래와 연관해서 우연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오직 상상력에 의존한다”(정리44 보충1). 스피노자는 이 정리44 보충1의 주석에서 어제 아침에 베드로, 점심에 바울, 저녁에 시몬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베드로를 본 소년의 예를 통해 ‘상상력의 동요’(imaginationis fluctuatio)를 설명한다. “이러한 [미래에 관한] 상상력의 동요는,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과거나 현재에 관해 고찰하는 사물에 대해 성립할 때의 표상과 동일한 것이다. 결국 우리는 사물을 현재, 과거 혹은 미래에 관해 우연한 것으로 상상한다”(정리44 보충1 주석). 이와 유사하게 스피노자는 3부 정리17 주석에서 앞의 주석을 언급하며 희망과 공포에 적용할 ‘영혼의 동요’(fluctuatio animi)에 대해 설명한다. “말하자면 두 개의 대립되는 정서에서 생기는 정신 상태는 영혼의 동요라고 불리어지며, 그것의 정서에 대한 관계는 의심의 상상에 대한 관계와 같다. 영혼의 동요와 의심은 단지 정도의 차이로만 구분된다.” 이제 그는 3부 정리18 주석1에서, 마찬가지로 2부 정리44 주석1을 참조하면서 상상력의 동요에서 영혼의 동요를 연역한다. “[...] 경험에 많은 사람들은 사물을 미래나 과거의 것으로 고

찰하는 동안 흔히 동요하고 그 사물의 결과에 대해 빈번히 의심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물의 이미지에서 생기는 정서는 따라서 확고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그 사물의 결과에 대해 확실히 알 때까지는 보통 다른 사물의 이미지에 의해 혼란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석2에서 “방금 말했던 것으로부터 우리는 희망, 공포, 안도, 절망, 만족, 상심이 무엇인지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시간과 연관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 곧 시간의 관점에서 사물을 우연적인 것으로, 의심스러운 것으로 혹은 불확실한 것으로 고찰하는 것이 상상력의 소관이라면, 이로부터 생기는 정서인 희망과 공포도 역시 상상력의 산물이며,²³⁾ 따라서 희망과 공포에 의한 삶 또한 상상적인 삶이다. 이런 삶은 이성의 인도에 의한 삶, 곧 이성적인 삶이 전적으로 대비된다.²⁴⁾ 스피노자는 미신가들을 이성이 아니라 공포에 의해 삶을 인도하는 전형적인 사람들로 규정한다. “덕을 가르치기보다는 결점을 비난하는 것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을 이성으로 인도하기보다 오히려 공포로 재갈을 물려 사람들로 하여금 덕을 사랑하느니 악을 피하게 하는 미신가들은 자신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만을 의도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들을 성가셔하고 미워하는 것은 놀라운 것은 아니다”(4부 정리63 주석).

공포는 미신의 원인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공포의 극한은 죽음이다. 죽음의 공포는 그 어떤 대상에서 비롯되는 공포와 차원을 달리한다. 그래서 미신은 죽음 앞에서 더욱 극성을 부린다. 스피노자도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인의 아들에게 야단치는 편지를 보낸다. “자네는 신에

23) 희망과 공포는 기본 정서인 기쁨과 슬픔에서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고려하여 파생된 혼란된 관념이다. “곧 사물의 지속에 대해 우리는 매우 부적합한 관념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미래는 그 자체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에게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 역시 대부분 우리에게 포착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희망과 공포의 쌍이 생각난다. 그것은 곧 그 결말이 우리에게 의심스러워 보이는 과거나 미래의 사물을 상상하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슬픔이다.”(A. 마트롱,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 186.)

24) “[...] 공포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은 [...] 이성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에티카』 4부 부록31항)

대한 사랑보다 지옥에 대한 공포로 이런 교회의 종이 되었는데, 그것이 미신의 유일한 원인이라네. [...] 자네는 내가 이성에 호소하는 것과 이것, 즉 정신 안에 있으며 왜곡되거나 부패할 수 없는 신의 진정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교만과 자부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편지76)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끊임없이 탐하는 사람 못지않게, 아니 더욱 사후세계를 그리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현세의 선행에 대한 보상의 희망과 현세의 악행에 대한 처벌의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미신의 주 먹잇감이자, 억견에 종속된 노예이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에티카』 4부 정리66 주석에서 노예와 자유인을 비교하고, 자유인의 성격과 생활방식을 보여줄 때 제일 먼저 제시한 것도 바로, “자유인은 결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의 지혜는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성찰이다”라는 정리67이다. 이성의 명령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 모든 것이 신의 필연적 본성에서 비롯되고, 자연의 영원한 법칙에 따라 행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곧 자유인의 제일의 특징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후 세계를 결코 상상하지 않으며, 이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따라서 미신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스피노자 역시 죽음이라는 현상에 주목한다. 비단 이것이 미신의 재물이라서 만이 아니라, 죽음이 영혼의 참된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철학적 구원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 죽음의 주제를 거론한다. 그 어느 곳보다도 4부 정리39와 주석 그리고 5부 정리38과 주석에서 죽음의 정체 및 그 공포에 대해 해명한다. 4부 정리39에서 스피노자는 인간 신체의 부분들이 상호 갖는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깨는 것은 인간 신체를 다른 신체로 변형시키는 것이며, 이는 곧 기존 신체의 파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 주석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신에게 해나 득이 될 수 있지를 5부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체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신체의 부분들이 서로 운동과 정지의 상이한 비율을 취하는 상태가 될 때 나는 신체가 죽은 것으로 이해한다.” 즉, 혈액 순환 등 신체를 살아있게 하는 여타의 것들이 여전히 지속된다 해도 신체가 다른 본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신

체가 오직 시체가 될 경우에만 죽었다고 인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기억상실증 환자를 예로 이것을 설명하고, “그러나 미신가들에게 새로운 문제꺼리를 주지 않기 위해 나는 이것을 이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면서 마무리한다.

이제 스피노자는 5부 정리38에서 “정신은 2종지와 3종지에 따라 많은 것을 인식할수록 나쁜 정서들로부터 그만큼 적게 작용 받으며, 그만큼 죽음을 적게 두려워한다.”²⁵⁾는 것을 증명하고, 그 주석에서 “이로부터 우리는 4부 정리39 주석에서 다루고 5부에서 설명하기로 약속한 것을 이해한다. 즉, 정신의 명석 판명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따라서 정신이 신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만큼 죽음은 덜 해롭(noxia)다.” 신체의 부분들이 갖고 있는 운동과 정지의 비율의 변화에 따른 신체의 변화와 다른 아닌 신체의 죽음이 정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신의 적합한 인식과 이에 따른 신의 사랑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5부 앞 정리들에서 스피노자는 신체의 본질을 영원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한에서 정신은 신체와 더불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부분은 남는다는, 이른바 정신의 영원성을 주장하고, 또 영원한 정신은 신을 인식하고 사랑하며, 나아가 신의 지적인 사랑에 대립되거나 이 사랑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체의 죽음은 정신에게 덜 해롭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정리39에서 스피노자는 2부 정리13 보충 주석 및 정리14, 4부 정리38과 39에서 논의했던 ‘적합한 신체’에 다시 주목하고, 이것을 영원한 정신과 연관해서 논의한다. 많은 것에 적합한 신체를 가진 자는 그 가장 큰 부분이 영원한 정신을 소유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적합한 신체 가진 자

25) 이 정리에서 스피노자는 정리의 앞부분, 즉 2종지와 3종지에 따라 사물을 인식할수록 정신은 그만큼 악한 정서로부터 작용을 적게 받는다는 것만을 증명할 뿐, 정신은 ‘그만큼 죽음을 적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증명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것은 이 정리의 주석과 정리39 주석에서 간단히 언급된다. 또한 이 정리는 정신의 영원성과 직관지에 의한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그리고 이에 존립하는 지복, 자유 및 구원에 관한 논의가 이미 모두 종료된 다음에 제시된 것이다. 그래서 이 정리에, 또한 이어지는 정리들에도 3종지만이 아니라 2종지까지도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의 정신은 그 가장 부분이 영원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은 신체의 변용을 신의 관념과 연관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의 정신은 신에 대한 사랑으로 자극되고, 나아가 이 사랑은 정신의 가장 큰 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 정리의 주석에서 비로소 ‘죽음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²⁶⁾이 소개된다. “인간의 신체는 많은 것에 적합하기 때문에, 자신과 신에 대해 커다란 인식을 소유하고, 그 가장 큰 부분 혹은 주요 부분이 영원하며, 그래서 죽음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들과 연관된 본성을 인간의 신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이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Mente sana in Corpore sano)²⁷⁾이지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들이 열거되어 있다. 즉, 2종지 및 3종지에 따라 사물을 인식하는 것, 같은 말이지만 신을 인식하는 것, 나아가 신을 사랑하는 것, 이로써 영원한 것, 즉 지성²⁸⁾이 정신의 가장 큰 부분을 접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은, 그래서 미신의 극복은 종국적으로 2종지에서, 앞에서 말했듯이 이성의 인도에 의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불확실한 선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에 따른 희망과 공포 사이에서의 동요가 ‘죽음 전’ 미신의 먹잇감이라면, ‘죽음 후’ 현세의 ‘보상에 대한 희망’ 그리고 ‘처벌에 대한 공포’가 미신의 대상일 것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에

26) 죽음이 ‘해롭지 않다’는 것에서 ‘두렵지 않다’는 것으로 넘어간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죽음을 전적으로가 아니라 ‘거의’(vix)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것이 『에티카』 마지막 주석에서 또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현자는 그 자체로 고찰되는 한에서 영혼이 거의(vix) 흔들리지 않으며, [...]”(5부 정리42 주석)

27) 스피노자는 정신이 가능한 많은 것들을 적합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가장 큰 부분을 영원한 것으로 채우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체를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에서, 그 본성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본성에 도움이 되는 한 무엇보다도 [...] 많은 것에 적합한 신체로 [...]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8) 5부 정리40 보충에서 남아 있는 부분을 지성으로, 소멸되는 부분을 기억과 상상력으로 규정하고, 전자가 정신의 능동성을, 후자가 수동성을 지시하기 때문에, 크기에 상관없이 전자가 후자보다 더 완전하다고 말한다.

티카』 5부 정리41 및 그 주석에서, 즉 ‘우리의 철학’을 끝내는 자리에서 ‘사후의 보상과 처벌’의 문제를 재차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정리41의 증명에서 ‘우리가 지금도 정신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성의 명령을 으뜸으로 간주할 것이고 혹은 간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신의 영원성에 대한 인식은 곧 죽음의 공포에서의 해방을 뜻하지만, 저 인식은 쉽게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 인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눈에는, 1종지에 따라 상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 어리석고 맹목적인 대중들이 현실에서 따르는 삶의 가이드는 이성의 명령이나 지도가 아니라 보상과 처벌에 대한 희망과 공포라는 것이다. “대중의 통상적인 신념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쾌락을 향유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에서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그들이 신적 법칙의 규정에 따라 살도록 구속되어 있는 한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 및 종교 그리고 전적으로 영혼의 강인함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짐이라고 믿고, 사후에 이것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자신들의 구속에 대해, 즉 도덕과 종교에 대해 보상을 받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런 희망만이 아니라 또한 특히 그들이 사후에 고통스럽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의해 그들 영혼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허용하는 만큼 신적 법칙의 규정에 따라 살도록 인도된다. 만일 이런 희망과 공포가 인간에게 없었더라면, 아니 반대로 정신은 신체와 더불어 소멸하고, 도덕의 짐에 소진된 비참한 이들이 다가올 삶을 기대할 수 없다고 믿었다면, 그들은 자연적인 기질로 되돌아가 모든 것을 쾌락에 따라 처리하고 그들 자신보다는 운에 복종하는 것을 선호했을 것이다. 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좋은 식품으로 영원히 양육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독이나 다른 치명적인 것들로 자신을 채우는 것을 선호하는 것 못지않게, 혹은 그가 정신이 영원하지 않음을 혹은 불사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쳐 있음을 혹은 이성 없이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 못지않게 나에게 부조리하게 보인다”(5부 정리41 주석). 이런 이유에서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 서문에서 말했을 것이다. “나는 우중을 미신이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시 알고 있다.”²⁹⁾

V. 맺음말

서양 근대에서 종교의 문제는 그 어떤 시대 못지않게, 그 어떤 주제 못지않게 시끄러웠던 주제였다. 이에 따라 미신도 또한 그랬다. 신에 대해 가당치 않은 의견을 갖는 것보다 차라리 전혀 갖지 않는 것이 좋고, 후자는 불신이지만 전자는 모독이며, 미신은 그래서 신성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신은 종교와 일상뿐만 아니라 철학, 과학 및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은밀히 작동되고 있는 신념체계이다. 청년시절에 유대교에서 파문당한 스피노자 역시 미신의 문제에 거의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의 저작 전반에 걸쳐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의 『신학정치론』은 물론이고, 자신의 철학이론을 윤리학의 관점에서 체계화한 『에티카』에서도 미신은 결코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신학정치론』에서 미신의 원인과 효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폭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미신의 성립 조건인 희망과 공포라는 정서의 정체, 이 정서의 치유책 등은 신학정치론이 아니라 철학의 과제로 간주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스피노자의 이 두 저작은 서로 상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미신의 문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은, 미신가들의 주장과 자신의 철학이 거의 모든 개별적인 주제들에 있어 상충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목적론적 사유가 자기 철학의 토대가 되는 결정론적 사유와 전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간이 갖고 있는 공포의 극한인 죽음의 문제는 미신이 먹잇감을 얻기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인 바, 따라서 스피노자는 그 어떤 주제보다도 이 죽음의 현상에 대해 나름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미신이야말로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신념체계라면, 그리고 그것이 무지의 산물과 다름 아니고, 이는 곧 인간 정신의 무능력 혹은 수동을 의미한다면, 미신은 지성의 명석 판명한 인식에 의해

29) B.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서문, 15.

사라질 것이다. 이로써 인간 정신의 삶은 수동에서 능동으로, 즉 자유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그래서 결국에는 미신이 야기하는 영혼의 동요를 극복하고 영혼의 평정인 참된 만족으로서의 지복, 자유, 구원의 길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스피노자 ‘구원의 윤리학’의 진면목일 것이다.

참고문헌

- Spinoza, B., *Spinoza Opera*, Gebhardt(Hg.), Heidelberg, 1933.
- _____, *The Collected Works of Spinoza*, trans. E. Curley, Princeton/NJ, 1988.
- _____, 『신학-정치론』, 최형익 옮김, 비루투출판사, 2011.
- _____, 『에티카』, 강영계 옮김, 서광사, 1990.
- Bacon, F., 『베이컨 수상록』, 권응호 옮김, 학일출판사, 1987.
- Descartes, R., 『정념론』, 김선영 옮김, 문예출판사, 2013.
- Gueroult, M., *Spinoza I-II*, Paris, 1968~1974.
- Matheron, A., *Christ et Salut des ignorants*, Paris, 1972.
- _____,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 김문수/김은주 옮김, 그린비, 2008.
- Nadler, S., 『스피노자와 근대의 탄생』, 김호경 옮김, 글항아리, 2014.
- _____, 『에티카를 읽는다』, 이혁주 옮김, 그린비, 2013.
- Wolfson, H. A., *The Philosophy of Spinoza*, New York, 1934.

<Abstract>

The Status of Superstition in Spinoza's Ethics of Salus

Lee Hyun-Bock
(Hanyang Univ.)

In *Ethica* versucht Spinoza zu zeigen, wie die menschliche Freiheit oder Salus oder Beatitudo, naemlich die wahre Befriedigung des Gemuets, moeglich ist. Er hat gemeint, dass dies durch die menschlichen Vernunft verwirklicht werden kann, dass die Superstition doch diese Verwirklichung verhindert. Spinoza betrachtet die Superstition fuer die Mengel der Erkenntnis oder das Unvermoegen des Geistes. Man kann also durch die *cognitio secundi generis* oder durch die *scientiva intuitiva* von der Superstition befreit werden.

Key words: Salus, Superstition, Fear, Knowledge, Liberty, Religion